

안석환 배우 · 군민 함께하는 '우리 무주'

연극 26~28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서 4회 공연
무주 중·고등학교 학생·교사 3개월 연습 결실

무주군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연극, '우리 무주'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연극과 영화, TV 드라마 등에서 좋은 연기를 펼치고 있는 안석환 배우(재능기부)와 20여 명의 무주군민(무주중·고등학교 학생 및 지역 내 교사)이 함께 3개월여를 연습하며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무주'는 미국 작가 손턴 와일더의 1938년 원작 '아이 타운(우리 읍내)'을 원작으로 한 것으로, 무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이야기로 각색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무주산골영화제 참가를 계기로 무주와 인연을 맺으며 이번 연극 무대 제안부터 연출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던 안석환 배우는 "이 작품은 인간미 뿜는 따뜻한 무주 사

들의 이야기"라며 "60년 공연을 통해 무주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작은 시도가 되겠지만 무대 경험이 무주지역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꿈을 위한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3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이룬 결실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실하게 맺히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무주' 공연은 2월 26일과 27일 오후 7시, 28일 오후 2시와 7시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이음 건설링 과정을 편성해 이번 공연을 위한 연습 등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 무주' 연극 포스터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 댄스 경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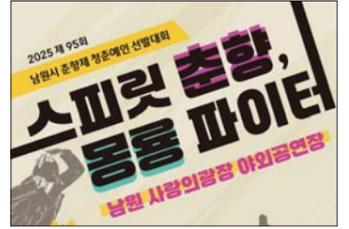
남원시, 제95회 춘향제 기간 5월 3~4일 선발대회 개최

남원시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 축제인 제95회 춘향제에 춘향과 몽룡의 사랑과 정신을 춤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국 청소년 춤꾼들을 남원으로 모이도록 해 댄스 경연을 펼친다.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2025.4.30.~5.6.) 기간에 청소년들이 댄스에 대한 끼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댄스 경연대회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를 5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8일까지로 전국 만9~24세 청소년 댄스팀(3인 이상)은 남원 시청 또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댄스동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namwon3363@naver.com)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5.3.)과 K-POP 커버 댄스경연(5.4.) 2개 부문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 경연은 온라인 영



상 심사(예선)를 통해 12팀씩 본선으로 진출하게 되고, 본선에서 최종 3팀씩 수상하게 된다.

총상금은 670만원으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창작, 스트릿, 합창 등), K-POP 커버 댄스경연(K-POP 커버 춤)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POP 커버 댄스경연 시상 후에는 대회 참가팀과 관광객, 남원시민이 함께하는 댄스 페스티벌(랜덤 플레이 댄스)이 펼쳐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천년 전주 명품은' 공식 판매

공예트렌드페어 전시 다과상 제품

'2024 공예트렌드페어'에 전시됐던 '천년 전주 명품은(Omn)' 브랜드 제품을 전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천년 전주 명품은(Omn) 다과상' 제품을 전주공예품전시관 명품관에서 공식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명품은(Omn) 브랜드는 다과상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도자 △금속 △소목 △복선반 △꽃철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제작됐다.

은(Omn) 브랜드는 전통 공예를 단순히 보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 생활 속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점이 특징이다.

특히 △디저트 3합 △떡감사작점시 △소반 △옷칠사각점시 △옷칠원형점시 △트레이 등 전통 기법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해 실용성을 강조했다.

김도영 원장은 "작가들의 창의적 해석을 통해 공예의 진정성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공예의 우수성을 재발견하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담은 공예품이 대중과의 교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산업팀(063-281-1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김정훈 개인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는 김정훈 개인전 '다름의 미학, 군산에 물들다'를 18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독창적인 표현력과 감각을 통해 일상의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를 제시하는 추상화 15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야 김정훈 작가는 대한민국의 현대미술사에서 다수 수상하는 한편 활발한 전시 활동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자매인 화가이다. 특히 자

신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단어인 '다름'의 가치를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까지 총 세 번의 개인전을 선보였다.

화가는 군산이라는 지역과 일상에서 느낀 감각을 응축하는 색채와 절제된 선으로 표현해 내면의 세계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김정훈 작가만의 표현기법으로 자유롭게 그려낸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사유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몽골 민속공연단, 남원 어르신 대상 전통 공연 선보여

남원시는 지난 14일, 몽골 민속공연단(미라지 예술단)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 동부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몽골 전통 공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교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몽골한인상공회의소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듯한 전통 창법인 흐미, 전통 악기 마두금 연주, 전통 무용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몽골의 장엄한 역사, 광활한 초원, 유목 문화와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켜 펼치는 1시간 동안의 향연은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관람한 어르신은 "평소 접해 보지 못해 생소한 몽골의 전통음악을 들어볼 수 있어서 신기



하고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제95회 춘향제 때 몽골 오랑캐에 어린이 공연단을 초청해 몽골과의 문화교류를 이어 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관광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025년 관광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은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전북형 위케이션 활성화, 전북자치도 한 달 여행하기,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클러스터 등 관광 및 MICE 분야다.

아울러,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전북 관광두레 지역협력,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전북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소풍관광 활성화 등 관광 지원 사업의 공모 일정과 지원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온라인 플랫폼 '투어라즈(tourazkr)' 활용 안내가 이뤄진다. '투어라즈'는 관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윈스플 플랫폼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신청 절차 및 협업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